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재건의 젠더*

김복순**

차례

1. 냉전 아시아에서의 리저널리즘 문제
2. 지역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 양상과 젠더
 - 2.1 서구 기행문: 승공·오리엔탈리즘·남성성의 결합
 - 2.2 아(亞)서구 기행문: '아시아 보편'의 재편성과 '붕인'되는 제국주의·젠더
 - 2.3 비서구 기행문: 네 개의 '아시아 리저널리즘'과 성적 은유
3. 맺는말

<국문초록>

『사상계』 기행문은 여타 잡지의 기행문과 매우 달랐다. 순수 여행담 성격의 글이라기보다 시찰담, 학술 교류, 학계 방담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사상계』가 스스로를 '종합학술지'로 규정하고 근대화 전략의 토대를 '학술교양'에 두고 있었던 점과 상통한다.

서구/아서구/비서구 기행문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근대' '국민국가' '발전'에 대해 상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서구 기행문은 오리엔탈리즘 시선으로 서구를 한결같이 '보편'으로, '발전'으로 표상하고 있었다. '제국주의의 눈'으로, 저개발의 후진국인 한국이 '발전'하려면 서구의 문명(화)을 수용해야 하다는 것을 여러 형태로 역설하였다. 식민주의가 비판되지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4601).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않았으며, 반공주의가 근대화와 결합하면서 ‘승공’(勝共)으로 가치화 되고 있었다. 따라서 리저널리즘에 대한 재편의식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문명론적, ‘발전(재건)’의 젠더는 남성이었다.

아서구 기행문은 피식민의 피해의식을 봉인하고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를 해금시킴으로써, ‘전후 일본’의 리저널리즘적 재편 욕망인 ‘새로운 아시아 보편’에 의식·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지식인의 사유를 환기하였다. 이는 일본 내에서 ‘전후 일본’이라는 내러티브가 전쟁책임과 가해의식을 봉인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연출한 것과 동등했다. 젠더의식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때의 ‘비(非)젠더’란 남성젠더적인 것이었다.

비서구 기행문에서는 새로운 민족적 관점을 충동하면서 리저널리즘의 재편을 통해 보편을 재구성하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리저널리즘에 대한 적극적·수동적 사유가 둘 다 목도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네 개의 ‘아시아 리저널리즘’으로 구분되었다. ‘냉전(반공) 우선성’의 아시아 리저널리즘, ‘발전론 우선성’의 아시아 리저널리즘, 우선성이 작동하지 않은 채 ‘냉전과 발전론이 결합’한 경우, ‘중립주의’의 아시아 리저널리즘이 그것이다. ‘반제국(식민)주의 우선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냉전(반공)을 ‘과잉전유’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발전론 우선성’의 경우 발전의 핵심은 ‘경제력 성장’이었지, 센(Sen)이 말하는 ‘자유의 신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중립주의는 아시아 리저널리즘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이었으나, 리저널리즘을 재편하고 보편을 재구성 하는 탈식민적 사유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는 후진성=여성성=저개발, 선진성=남성성=발전이라는 성적 은유가 작동하고 있었다. 『사상계』 기행문에서 ‘발전(재건)론’은 젠더의제가 실종(소거)된 기획이었다.

핵심어 : 냉전, 아시아 리저널리즘, 아시아 보편, 발전론, 재건, 저개발, 후진성, 젠더의제, 반공, 승공, 오리엔탈리즘, 냉전자유주의, 성적 은유, 탈식민, 식민지 근대화론, 중립주의

1. 냉전 아시아에서의 리저널리즘 문제

민족이 ‘인류라는 보편세계를 구성하는 특수적 존재’로 상상되는 한, 민족 구성 및 국민국가 만들기 과제는 민족의 존립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보편세계를 구성해야 한다.¹⁾ 해방후-전후 당대의 정치·지식인들은 자신의 민족·민주주의 의제에 따라, 민족주의 이념 및 담론을 생산하고, 소위 ‘보편’의 재구성을 기획하면서²⁾ 국민국가 만들기 작업을 시도하였다.

제2차 대전 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시아·아프리카 나라들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보편’ 구성의 과제에 직면했다. 문명론적 관점에서 서구 또는 미국을 보편세계로 수용할 것인가, 새로운 민족적 관점을 충동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리저널리즘(regionalism)이 대두된다. 리저널리즘이란 지역주의적 세계인식을 의미한다. 마루카와 데쓰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리저널리즘이란 국민국가 체제와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국민국가 ‘간’ 체계의 규정과 한계를 초과하는, 보다 광역 차원에서의 세계인식을 의미한다. 식민지 시기만 해도 아시아를 뜻하는 ‘동아’의 외연은 ‘일본의 아시아 점령 지역 내지 식민지’를 의미하는데 그쳤다. 즉 황인종이라는 생물학적 또는 자연발생적 범주가 강조되면서 지역적 인접성 및 확장된 혈연성에서 유래하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러한 의미에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피식민이라는 과거의 역사 경험과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아젠다의 공통적 특수성이 아시아라는 리저널리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1) H.D. 하르투니언·마사오 미요시, 『포스트모더니즘과 일본』, 시각과 언어, 1996.
2) 보편의 재구성이란 ‘서구적 근대’를 보편적인 세계사적 발전과정으로 보면서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이를 부정하고 ‘서구적 근대’와 다른 ‘새로운 근대’를 또 하나의 보편적 틀로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후자의 경우 ‘서구적 근대라는 보편’의 ‘해체’와 맞닿을 수 있으며, ‘서구적 근대’ 지향/ ‘서구적 근대’ 비판·극복/ 탈근대·탈식민/반근대·탈식민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신식민지 시기 반미소설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권3호, 2013, 참조.

리지널리즘의 재편과제는 ‘공식적 제도’ 또는 ‘비공식적 제도’를 동원해 담론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학교교육을 통한 제도적 확산을 비롯해, 당대 영향력이 있던 잡지 등을 통한 담론의 생산/재생산 등을 통해 국민의 아시아 인식을 구성하고 조정하고자 했다. 아시아 리저널리즘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해방~1950년대까지의 아시아 기행문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아시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상의 구축이 당대 최고의 문명국으로 인식되던 미국문명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으며, 미국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연구되었다. 남한 국가와 미국의 유대 또는 탈식민지 남한에 작동하는 미국의 패권을 인식론적으로 정당화 하는 문화작업물이었다³⁾는 것이다.

하지만 1950~6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인식론적 정당화는 부분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고, 4·19를 거치면서 다양한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이 냉전의 세계적 확장과 시공간적으로 겹치지면서, 냉전을 나름대로 ‘전유’하고 ‘해석’하기 시작한다. 아시아에서 냉전이 산포되는 과정은 ‘적극적 수용’ ‘협상’ ‘충돌’ ‘전복’ 등 다양하게 분기되어 나가는 과정⁴⁾이었다. ‘반(反) 식민주의의 무기로서 민주주의가 전유’되거나 ‘민족주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사회주의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국가 만들기의 과정과 겹치면서 아시아 지역 도처에서 목격되었다.⁵⁾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은 여러 형태로 분기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친미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리저널리즘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었는지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냉전의 정착기, 안정

3) 임종명, 「탈식민 초기 남한 국가 엘리트의 아시아 기행기와 아시아 표상」, 『민족문화연구』 제52집, 2010.

4) 장세진, 「역내 교통의 (불)가능성 혹은 냉전기 아시아 지역 기행」, 『상허학보』 31, 2011, 126쪽.

5) 령유, 「복수성 관리하기-냉전 초기 싱가포르 주변의 정치학」,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김수현 역, 현실문화, 2008.

기, 4·19 이후의 동요기에 ‘아시아 리저널리즘’이 어떻게 재편되고, ‘아시아-보편’ 구성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50~60년대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던 잡지인 『사상계』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 전인 1950년까지 또는 4·19 이전인 1960년까지의 기행문은 연구된 바 있으나,⁶⁾ 4·19 이후인 1960년대의 기행문은 분석된 바 없다. 김미영의 경우 지식인들의 인식적 특징을 분석한 것이어서 아시아 리저널리즘과는 별 연관이 없으며, 거의 1970년대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⁷⁾ 또 기존 연구에서는 아시아 기행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구/아시아’ 보편이 어떻게 변화되고 차이를 드러내는지 분석하지 못하였다.

우리(한국)의 대타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대’와 ‘보편’ ‘주체’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달라진다. 대타항을 ‘서구(적 근대)’로 볼 경우, ‘아시아’·‘아프리카’로 확장할 경우, 또 아시아 중에서도 식민-제국이었던 ‘일본’(아(亞)서구)을 볼 경우, 한국이 바라보는 ‘우리’ 및 ‘한국의 근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위 세 가지의 경우 대타에 대한 표상 및 아시아 리저널리즘은 다르게 드러난다. 즉 서구와 아서구, 비서구가 다르게 전유되는 것이다. ‘서구(적 근대)’와 아시아, 아프리카, 일본이 동시성의 시선을 가지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맥락 하에 표상되고 인식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상계』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뿐 아니라 동백림·서백림의 독일, 스페인, 이집트, 이탈리아, 캄보디아, 인도, 백색혁명의 이란 및 아프리카 기행문도 게재되어 있다. 이들 나라들은 『사상계』의 국민국가 만들기 및 재건 주체 형성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논의가

6) 임종명의 연구는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50년까지, 장세진의 연구는 1950년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김예림의 연구는 『사상계』 1950년대의 일반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예림, 『1950년대 남한의 ‘아시아 내셔널리즘’론』, 사상계 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7)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제50호, 2013.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아시아’의 재구성 및 ‘아시아 보편’이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대한 지도그리기가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기행문은 기본적으로 ‘공간’ ‘지역’을 매개로 한 ‘정체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즉 ‘타자-주체’의 관계가 그 어느 양식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기행문이다. 특유의 현장성으로 인해 ‘타자-주체’의 관계에서 동요하는 ‘자기 구성’의 인식적 계기들을 ‘직접적’으로 잘 포착해 준다. 기행문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성과 자문화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어 탈식민적 사유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대상지역에 대한 표상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구성해 가는 일종의 ‘이중기획의 산물’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근대 기행 양식은 ‘공간’을 ‘국토’의 형식으로 분절화 함으로써 강력한 민족주의적 상상을 촉발시키는 양식이다.⁹⁾ 따라서 국민국가 만들기의 중차대한 과제를 실현해야 했던 1950~60년대의 기행문을 살펴보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건(개발, 발전)과 여성’이 어떤 연관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도 검토함으로써 개발의제와 젠더의제의 통합 가능성 여부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 발전의 핵심을 ‘자유의 신장’으로 보든(Sen),¹⁰⁾ ‘사회 전체 시스템의 상향 조정(뮈르달(Myrdal))’으로 보든, 발전의 핵심은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적 질곡을 제거하는 동시에 더 나은 행복의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대의 한국을 ‘저개발’ ‘후진국’으로 규정한 『사상계』가 재건 주체로 설정한 대상은 누구였는지 미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이 본 인도’ ‘베일 쓴 여인의 나라’ 등 기행문에서 ‘여성의 시선’

8) 김미영, 위의 글, 28쪽.

9) 김현주, 『한국 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10)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경제의 양적 성장을 경제발전(GDP, GNP)과 동일시 하는 관점(발전에 대한 협소한 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전이란 ‘다양한 실질적 자유의 확장’이라 역설한다. 센에 의하면, 발전은 부자유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제약’에 해당하는 liberty가 아니라 ‘실질적 자유(freedom)’이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장이 ‘발전의 목표’라고 항변한다.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김원기 역, 갈라파고스, 2013, 제1-2장 참조.

을 드러낸 바 남성/여성의 재건에 대한 인식·방법의 차이를 비롯해, 재건 자체의 젠더적 성격도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¹¹⁾

『사상계』에 실린 기행문들은 여타 잡지의 기행문과 좀 다른 성격을 드러낸다. 순수 여행담 성격의 글은 매우 적고, 있다 하더라도 수필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행문이란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다. 『사상계』의 기행문은 시찰담, 학술 교류, 학계 방담의 성격이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사상계』가 스스로를 ‘종합학술지’로 규정¹²⁾하고, 독자층을 지식인과 학생으로 설정한 점, 『사상계』의 근대화 전략의 토대가 내용상 ‘학술교양’에 해당하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런 탓에 『사상계』에 게재된 글은 거의 학술논문에 속하는 전문적인 것이었고, 시사·교양·문예의 이름으로 연재된 글들도 거의 전문적인 학술논문에 가까웠다.¹³⁾ 기행문도 이와 동격으로, 단순 여행담은 거의 없었다.¹⁴⁾

창간호부터 1970년 중간 때까지 ‘여행’이란 표제가 붙은 것과 국제회의, 국제학회 등 ‘**에 다녀와서’라는 표제의 것을 합치면 100여편이 된다. 여기서는 『사상계』의 의도를 살려, 이 중에서 ‘기행’이란 타이틀이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제에 ‘기행’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은 총 40여편 정도이다. 나라별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프리카, 일본, 캄보디아, 인도를 비롯해 스칸디나비아, 스페인, 이집트, 모로코까지 서구와 비서구·아서구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단순히 여행지를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계』의 근대국가 구상 및 재건의 방법 및 주체설정 작업과 연관되어 있다. 즉 『사상계』의 기행문은 거의 ‘특집’ ‘기획’의 의도를 드러낸다.

11) 『사상계』에 여성이 쓴 기행문은 거의 없다.

12) 53.5호 표지.

13)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 냉전지(知)의 젠더--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79쪽.

14) 한 예로 전해린의 「회색이 포도(鋪道)와 레몬빛 가스등」(63.11)은 슈바빙을 여행한 기행문임에도 수필로 분류, 게재되었다.

2. 지역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 양상과 젠더

2.1 서구 기행문: 승공·오리엔탈리즘·남성성의 결합

서구 기행문은 대체로 발전론에 입각하여 문명론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특징을 보인다. 오영진의 『아메리카 기행』(54.6)은 하와이를 거쳐 미국으로 여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행문에서 하와이는 미국이면서도 미국이 ‘아닌’ 곳이다. 사모아의 원주민과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흑인, 백인이 뒤섞여 인종과 언어, 문화에 있어 미국이면서도 미국이 아닌 곳이다. 필자는 본토와 식민지 하와이를 분리해 사유하면서, 하와이를 소음과 문화와 위협이 없는 ‘영원한 휴식의 섬’(175)으로 규정한다. 거기다 ‘유색인종의 존재가 이처럼 당연스러운 곳이 어데 또 있을까’라면서 인종적 편견마저 드러낸다. 식민지 하와이=자연=휴식=야만=미개로 등치화 하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을 제시한다. 여기에 하와이=남방의 정열=여인이라는 성적 은유까지 드러낸다. 하와이는 각색 인종과 민족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포용되는 국제성을 드러내지만, 이것을 다시 모든 것을 품는 모성성으로 환치한다(176). 즉 식민지=황인종=야만=여성성=모성성이라는 성적 은유를 만들어내고 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포용되는 ‘넓은 세계’인 하와이가 유독 한국인에게만 ‘좁은 세계’로 느껴지는 것은 아직 이민자 한국인들에게 봉건적인 사상과 협착한 지방관념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미국이지만 이곳 한인사회에는 여전히 차별의식이 남아 있다(179)고 비판하는 부분은 주변인으로서의 열등감이 하와이 동포들에게 재적용된 부분이며, 49년 전에 이민 온 노인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국’이라는 말을 인용하는 부분과 이민 2세들이 ‘한국’적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모국’이라는 존재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서구의 가치인 ‘돈’보다 ‘민족’ ‘국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일깨운다. 전체적으로 ‘서구’에 대한 주변인으로서의 느낌보다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민

2세대에 대한 걱정이 압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집주인의 젊은 가족들에게는 우리 이야기가 통 흥미가 없다.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뿐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지조차 못한 「코리아」라는 나라 자체에 관하여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지, 「텔레비죤」앞에 닳아 닳아 떨어지지를 않는다. 확실히 한 가정에도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중략)....가정에도 두 세계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두 사회가 있는 것이다(173~174).

이민 1세대는 한국의 재건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대구 대화재 사건에 접해 의연금을 보낼 회의를 하는 반면, 2세대는 모국을 잘 모를 뿐더러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기행자는 마치 자신이 민족/국가의 '대표자'인 것처럼 이런 하와이의 두 세계를 걱정한다. 즉 민족적 동일성이 국가재건의 토대로 기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과, 가난 때문에 발생한 이민의 역사가 주는 '연민'이 드러나는 바, 이는 재외동포에 대해 거리를 두고 평가적 시선을 유지하는 여성기행자(모운숙)의 글과 비교되는 부분이다.¹⁵⁾ 이 글에서 냉전(반공)논리는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아직 재외동포를 "통치의 대상"으로 호명하지 않는다.¹⁶⁾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진 이민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한인에게 기회를 준 이 땅 하와이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넓은 세계'라고 지칭하면서, '세 사람에 하나씩 밖에 안 돌아가는 고무신'/'끊임 없는 자동차 행렬'로 대비되는 한국/미국에 기초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근대화 논리를 기조로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 의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15) 모운숙의 「내가 본 세상」의 경우 동질감이나 연민보다 평가적 시선을 보인다.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한국근대문학연구』, 22집, 2010, 212-213쪽.

16) 재외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재발견'하는 대표적 사건은 「동백림사건」이다. 내부의 성장(재건)에 주력하느라 196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재외국민은 한국정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성창환의 「미국대학생활의 편모」(58.2)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교육에 바치는 헌사라 해도 무방하다. 3개월간의 체험기인 이 글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비참, 청춘 억압, 데모크라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189~190)으로 비판되는 반면, 미국의 교육은 자유와 실효성, 청춘의 환희, 자주적 의욕 등 민주적 교육으로 상찬된다. 물질문명의 고도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의 노동과 존엄성을 가져온 듯하다며, 이런 사회기구를 만들어 놓은 미국의 위대한 선각자들을 칭송한다.

물질문명의 폐해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을 제시해 보여준다. 소비예찬이 그 대표적인 부분인데, 과잉생산 단계이기 때문에 ‘낭비에 가까운 소비’ 없이는 미국 산업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양적 고용정책 단계를 넘어 질적 고용정책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패키지 기술의 발달로 가정생활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그 결과 빈부의 차이마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우주정복은 큰 자극제로서 미국의 물질문명은 일대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더욱 완벽해지고 있는 미국 물질문명의 결과를 자랑하고, 소련과의 경쟁에서 냉전의 ‘우위’를 차지한 미국의 능력을 확인시킨다. 즉 물질문명=자유=존엄성=민주주의로 연결시키면서 은연중 반공주의 논리를 옹호하고 있다. 여기서 반공주의는 민주주의·자유주의의 의미로 활용되었다.¹⁷⁾ 이 기행문에서 냉전의 한 축인 소련은 이미 거세되어 있을 정도로 무의미하며, 이미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일인자의 위치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근대화, 발전 논리 속에서 냉전(반공)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다.

양홍모의 「백악관의 주변 역사」(64.3)도 동일한 기초를 취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정책의 진원지이고, 세계 시청(視聽)의 초점이며, 많은 예술품을 비장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번영이 자원과 기술 뿐 아니라 백악관에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170여 년

17) 이하나는 반공주의를 10가지로 세분화 한 바 있다. 이하나,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정 정치」, 『사회와 역사』, 제95집, 2012, 201-241쪽.

간의 미국의 번영이 곧 현재의 미국의 위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백악관을 조명한다. 이 기행은 미 국무성, 국방성, USIA와 백악관이 스폰서가 되어 아시아 13개국 언론인을 초청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미국은 50년대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많은 원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상계』가 참조한 바 있는 '세계문화자유회의(Congress of Cultural Freedom, CCF)'도 CIA의 지원 아래 냉전문화를 유포하고 있었다.¹⁸⁾ 전 세계에 35개의 지부를 두고 「인카운터(Encounter)」와 같은 유포 잡지 20여종을 발행하면서 냉전(반공) 논리를 유포하였다. 문화를 이용한 선전선동 활동(cultural propaganda)은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미국의 방식'(the American way)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¹⁹⁾ 따라서 이 기행문에는 냉전(반공)논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반공주의를 동원하지 않고도 근대화화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방식(Pax Americana)'을 수용하도록 만든다.

18) 베른트 슈퇴버,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최승환 역, 역사비평사, 2008, 126쪽. 프랜시스 손더스,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유광태·임채원 역, 그린비, 2016, 참조.

19) 프랜시스 손더스,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유광태·임채원 역, 그린비, 2016, 16쪽. CIA의 물질적 지원은 지식인들이 광범위한 설득활동, 선전전의 일환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적 냉전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지식인들 중에는 좌파 출신도 많았다. CIA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증진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이 책은 수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한다. 그들이 '지적인 자질'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선택되었으며,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미국 정책 입안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즉 지식인들은 특별한 논증이나 문제제기의 방법으로 특정 정보나 신조를 퍼트리는 심리전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즉 그들은 자유와 민주적 표현의 가능성을 증진시켰다기보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속박당하는 상황, 즉 사이비 자유(un-freedom)를 초래했다고 강조한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1950년대에 널리 쓰였던 자유민주주의를 '냉전자유(민주)주의'(특정 자유를 위해 다른 자유를 통제·억압·배제하고, 제한된 '가짜 자유'를 '자유'로 이데올로기화 한 것)라 명명·분석한 글로는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29호, 2013.;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참조.

독일 기행문 중 「동백림과 서백림」(59.2)은 냉전(반공) 이데올로기와 근대화 서사, 탈식민적 지향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글이다. 필자 양호민이 독일의 장학단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상태에서 같은 처지의 외국유학생(28명)과 함께 일주일 동안 베를린²⁰⁾을 여행하고 쓴 기행문이다. 외국유학생 중에는 공산국가 학생도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독일과 같은 분단국가의 학생으로서, 베를린은 산뜻, 야릇하고 기괴한 이역(異域)(275)이라는 인상으로 다가온다. 베를린은 예상대로 ‘냉전과 긴장의 도시’(276)였다. 필자 자신도 이번 여행을 서독의 여유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275)고 진단한다. 동서독의 긴장상태는 아시아의 그것, 특히 한국과 양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A박사를 통해 스탈린의 베를린 봉쇄(48.6.18)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공산주의자들의 비인도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포문을 연다. 하지만 1945년부터 베를린을 분할통치 했던 냉전의 또 다른 축인 미·영·불에 대한 책임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베를린의 분열과 봉쇄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비난되는 것은 오직 소련뿐이다. 서베를린 어디를 가도 반공·반소의 냄새가 강하게 난다(280)고 하면서 공산주의 비판에 열을 올린다. 왜 공산주의를 싫어하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공대생은 ‘경험했으니까’라고 잘라 답했다면서, 자유인의 건전한 생존의식이라고 설파한다. 냉전 10년사를 기술한 베를린의 아버지 에른스트 로이타가 시민주의의 토대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3페이지 가량 길게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냉전과 반공의 역사적 합법칙성이 언급되는 듯하다.

필자는 전혜린과는 다르게 ‘서독=재건’으로 정리한다. 전혜린이 서독의 도시 뮌헨을 ‘자유’ ‘지적 모험의 산실’로 이상화 했다면,²¹⁾ 이 글의 필자

20) 백림은 베를린을 뜻한다. 분단시대 동독지역에 속한 베를린은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었다. 1960대까지는 한자식으로 ‘백림’으로 표기했지만, 현재 모든 학술서에서는 ‘베를린’으로 표기한다. 본고에서는 ‘동백림사건’ 자체를 지칭할 때만 ‘동백림’이란 지명을 사용하고 나머지의 경우 모두 ‘베를린’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1) 전혜린에 대해서는 서은주, 「경계 밖의 문학인--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연구』, 제11호, 2004, 참조.

는 ‘재건’으로 이상화 한다.²²⁾ 위에서 언급한 에른스트 로이타도 재건사업을 일으켜 성공시킨 사람인 바, 서독의 부흥은 한국이 꼭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 물론 서독의 부흥에 시민들의 ‘내핍’이 있었노라는 언급도 있지만 ‘냉전·반공·재건·내핍’=‘자유·행복’의 논리로 개념화 한다. 내핍이 반(半)강제적 절약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자유, 행복이란 개념과 함께 등치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서베를린은 ‘자유와 행복의 도시’로 묘사된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여성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화장을 통해 풍족하고 여유 있는 도시, 아름답고 변화한 도시, 휘황찬란하고 거창한 불야성의 도시(277), 자유를 그대로 향락하는 도시로 그려진다.

반면 동베를린은 이와 대조적으로 날림, 초라(285), 파괴와 빈곤(286), 비참과 충격(287), 위압적 문화, 중노동(287), 반(半) 폐허 상태(287), 굴욕으로 의미화 된다. 베를린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해방공원도 소련이 점령한 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면서도, 그저 스탈린 숭배와 소련예찬으로 가득차 있다(286)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될 뿐이다. 동베를린은 도시구석구석이 식민지 풍경으로 비춰진다. 동베를린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스탈린가(街)도 ‘공산주의자의 선전용 표본’으로 비칠 뿐이고, 거리의 많은 백색건물들도 ‘획일적’인 공산주의 문화의 결과로, 사상이 침투한 결과로 인지된다. 동베를린의 이러한 식민지적 풍경은 이식문명이 아니라 동베를린의 주체성과 자율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 서베를린을 설명할 때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어도 주체성과 자율성 부족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동베를린은 식민지, 이데올로기의 문제, 동베를린의 시민의식 등으로 판단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또다른 동유럽 공산국가인 유고 출신의 친구 R군을 통해서도 공산주의는 비난된다. R군이 소련을 비난하는 이유는 얼마전 소련과 유고가 틀어진 사연²³⁾과 관련이

22) 물론 뮌헨과 베를린은 다른 감각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베를린 뿐 아니라 당시 독일 전체가 분단상태였음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차이는 매우 다른 인식틀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23) 1954년 소련과의 국교 회복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외교 노선의 기본 원칙은 친서구

있지만 그 내용은 소개되지 않은 채, 공산주의자로부터도 외면되고 비판 받는 것으로 전달할 뿐이다. 동베를린의 경제적 취약성을 동독 전체로 일반화 하는 오류까지 보이는 것은 동독 마르크 화폐가 서독 마르크의 1/4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동베를린이란 도시는 ‘정치가 일장의 희극’임을 알려 주는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공산주의/민주주의=굴욕/자유라는 등식화를 이루어낸다.

이러한 등식화는 ‘승공’ 논리와 맞닿아 있다. 박정희는 1964년 서독을 방문한 후 남한의 산업화 정책, 경제성장에 기반한 승공정책을 추진한 바, 이 기행문은 마치 5년 후의 승공정책을 선취해 보여주는 듯하다.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68운동으로 이어지는 혁명적 분위기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고,²⁴⁾ 더구나 필자 양호민은 1961년 『민족일보』²⁵⁾ 논설위원을 지낸 진보주의자이다. 그럼에도 이렇듯 냉전(반공)의 영역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사고의 편린을 드러내고 있다. 탈식민적 인식도 동베를린과 관련해서만 언급되며, 서베를린의 경우 민주주의와 재건(개발)논리로 등치화 하면서,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우월적인 것임을 애써 강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적인 것에서 중립주의로 바뀌었으며, 1958년에서 1966년에 이르는 동안 티토는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를 방문하여 지지 세력을 얻었다. 1958년 3월에 발표된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은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사회주의적 기능, 사회주의 국가의 사멸의 전망,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것과 결부된 국제 정치에서의 패권주의 등을 비판함으로써, 소련권 제국과 유고슬라비아는 이데올로기상의 차이가 더욱 커져 갔다. 김철민, 『한국전쟁과 동유럽』, 아카넷, 2008, 참조

24) 이정민, 『동백림 사건을 둘러싼 남한 정부와 서독정부의 초기 외교갈등』, 『사람』, 제50호, 2014, 73쪽. ; 크리스 하먼, 『세계를 뒤흔든 1968』, 이수현 역, 책갈피, 2004. 참조.

25) 4.19 후 1961년 2월 13일에 창간된 진보성향의 일간지이다. 발행인은 조용수였고 송지영과 양호민이 논설위원이었다. 4.19 후 범 진보진영을 결집하는 매체로 창간된 신문이다. 5·16이 일어나자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5월 17일부터 신문발행이 정지되었고, 19일 계엄사령부로부터 폐간처분을 받아 3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이후 60년대에 양호민은 서울대 법대교수로서 『사상계』 편집위원 및 주간을 맡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필자 양호민이 거듭 강조한 바, ‘산업화 우선의 신생국 민주주의론’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양호민은 『사상계』 내에서 이례적인 인물로서,²⁶⁾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산업화를 강조하면서도 민주화를 당면과제로 설정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 그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았다.²⁷⁾ 즉 기본적으로 근대화론, 발전론에 입각해 있지만,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자라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과 연결시켜 독재정치를 정당화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논리를 명확히 반대했으며, 분단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민주화를 달성할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⁸⁾ 당시 분단국 독일은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도 남한과 달리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었는데,²⁹⁾ 양호민의 기행문은 분단국 독일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경직되게 수용하면서 승공 이데올로기로 구성해 가고 있었다.

한편 동베를린의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인용하는 ‘중노동 하는 할머니’(287)는 ‘경제적 취약성=여성=50대’로, 즉 빈곤이 젠더화·세대화 되는 지점을 확인시킨다. 빈곤 등의 경제적 취약성이 여성성의 영역임이 드러난다. 발전(개발)론의 남성젠더 시선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위에서 검토했듯이 서구 기행문은 오리엔탈리즘 시선으로 서구를 한결 같이 ‘보편’으로, ‘발전’으로 표상하고 있었다. 한국 중심의 아시아와 미국·유럽 중심의 서양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었고, ‘제국주의의 눈’으로, 저개발의 후진국인 한국이 ‘발전’하려면 서구의 문명(화)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형태로 역설하고 있었다. ‘서구’가 ‘의심의 여지없는’ ‘근

26) 이상록,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10, 161쪽.

27) 이 지점이 차기벽과의 차이이다. 차기벽은 산업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차기벽, 『신생제국의 위대한 각성』, 『사상계』 119호, 63.3.

28) 양호민, 『한국민주화의 문제점』, 『사상계』, 63.3, 494~495쪽.

29) 이정민, 앞의 글, 71쪽. 동백림사건이 발생한 1967년까지 동독지역은 서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료품과 서적 등의 값이 저렴했고, 그 때문에 유학생들이 동베를린에 자주 출입했다고 한다. 동백림 사건은 미·소에 의해 구성된 ‘냉전의 문법’이 1960년대 남북의 양 체제에 의해 새롭게 전유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대화의 모델'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는 서양의 우수성에 감탄한 후 동양에도 우수한 것이 있다는 식의 이어령의 서술과도 비교된다.³⁰⁾ 여기서는 아시아, 동양의 우수성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즉 아시아 리저널리즘은 오리엔탈리즘의 시선 '하'에 위치해 있었다. 식민주의가 비판되지 않고 오히려 근대화의 논리로 옹호되고 있었으며, 반공이 근대화와 결합하면서 '승공'(勝共)으로 가치화³¹⁾ 되고 있었다. 『동백림과 서백림』에서 보듯 냉전(반공) 지향이 발전론과 결합해 승공 논리를 드러내면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었다. 즉 보편을 재구성하려는 사유도, 시도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여기서 문명론적, '발전(재건)'의 젠더는 남성이었다. 여성 필자들이 여행 자체를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체험중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면, 남성 필자들은 스스로를 국가 대표자의 지위에 올려놓고 기행담론의 성격을 공적 담론화 하는 경향³²⁾이 있었다.³³⁾

2.2 아(亞)서구 기행문: '아시아 보편'의 재편성과 '봉인'되는 제국주의·젠더

아서구란 일본을 의미한다. 일본 기행문은 모두 3편이 발견되며, 공히 '서구' 또는 '비서구' 기행문과는 아주 다른 사유를 드러낸다. 두 편은 일본 경제계 및 농업계의 발전상을 드러낸 것이고, 한 편은 일본의 학계 및 문화, 고찰 등을 둘러보고 쓴 기행문이다. 최문환의 「일본학계를 보고--

30) 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것이 한국이다.』, 현암사, 1963; 『바람이 불어 오는 곳: 이 곳이 서양이다.』, 현암사, 1966.

31) 성장환, 「승공을 위한 경제정책」, 『사상계』, 62.6.

32) 김미영, 앞의 글, 참조

33) 이 부분의 내용이 앞서 언급한 오영진/모운숙에서 남성-연민/여성-평가와 모순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모순적이지 않다. 모순적이라고 볼 경우 오히려 여성=개인주의적=체험주의적=연민/남성=국가 대표적=평가라는 성적 이분법 체계를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경제계의 발전상을 말한다」(62.2)는 ‘아시아재단’의 원조로 61년 11월 말부터 약 3주간 일본 학계를 시찰하고 작성한 기행문이다. 이 기행문의 필자는 공업·농업 분야를 비롯한 전 일본 경제계의 비약적 발전에 이중삼중으로 감격해 마지 않는다. 공업·농업계의 발전을 비롯한 경제계의 발전이 모든 사회적 진보의 기초 및 원인이 되며,³⁴⁾ 이로 인해 고도의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역설하고 있다. 또 사회적 안정이 완성되면 각 개인의 자유, 창의가 발휘된다고 강조한다. 센이 말한 바, ‘발전’이 ‘자유’를 확장한다고 보는 ‘자유로서의 발전’ 입장에 서있다.³⁵⁾ 전체적으로 발전론에 대한 상찬이라 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이 글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경제적 발전과 연구활동의 유기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친일 네트워크 형성, 즉 국가권력-학계-아시아재단의 공조관계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 글의 필자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일본에서 8년이나 보낸(1941년부터) 인물이다. 21년에 만의 방문은 마치 고향(모국)을 방문하듯 온통 ‘들떠 있음’으로 묘사된다. 와세다, 도쿄, 교토, 잇교, 고베 대학 및 부속연구소 등을 시찰하면서 해당 대학의 교수들(일부는 지도교수, 은사)과 경제이론 및 한국의 경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 논의에서 ‘발전’(근대화)의 모델은 양쪽 모두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설정한다. 일본의 대학과 연구소에도 미비한 점이 있지만 한국의 경

34) 이만갑의 「일본 농촌을 목견하고--기계화와 협동사업의 성공지역을 둘러 보고」(62.2)도 ‘발전’과 관련한 동일한 논지를 드러낸다. 이만갑은 일본 농촌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농촌의 발전과 번영이 다른 산업의 번영과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지한다. 기계화와 개척·협동사업에 관해 각각 岡山와 新池를 소개하고 있다. 발전론을 입장을 확인시키면서 일본 농촌이 유지되려면 시장을 동남아 및 다른 지역을 발견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35) 센을 잘못 이해할 경우,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육성책(성장)이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켰고, 그것이 1980년의 봄과 1987년 6월 향쟁이란 민주화를 가져온 동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센(Sen)은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저항과 투쟁이 이러한 진보성을 지켜준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다. 아마티아 센, 김원기 역, 앞의 책.

우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차이는 바로 문화 발전의 차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촉진시켜야 한다. 일본의 학자를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부르면서, 일본학자의 연구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문제는 모교의 후배 학생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나의 일생을 통하여 잊을 수 없는 기억’(228)이 될 것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순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가볍게’ 초극된다는 점이다. 일본과 일본의 대학, 모교의 후배들을 (식민주의나 제국주의를 떠올리면 곤란한) 그저 ‘한 인격과 인격, 한 인간과 인간의 해후’(228)로 보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반복해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압권은 구로다(久保田)교수가 ‘혁명정부에서 하는 경제계획의 방향이 옳다’고 했다는 지점이다. 이 부분은 국가권력-학계-아시아재단의 공조관계를 확인시킨다.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은 미국의 민간기구인 ‘자유아시아위원회’(1951)가 1954년 재편된 것으로서, 미국의 냉전 전략이 문화적으로 관철되는 일종의 통로였다. 초기에는 아시아지역에서의 반공 선전 활동에 치중했으며, 아시아재단으로 개편된 후에는 반공선전보다 아시아를 문명화 하는 것, 즉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재구조화 하는 것을 지향했다.³⁶⁾ 미국은 아시아재단 뿐 아니라 포드재단, 한미재단, 록펠러재단 등 민간재단을 통해서 냉전의 총력전 양상을 보이며 냉전정책을 펴고 있었다.³⁷⁾ 『사상계』도 창간 초기 미국 공보부(USIS)로부터 용지공급을 받아 잡지를 간행한 바 있다.³⁸⁾ 이미 1966년에 밝혀졌듯이 아시아재단의 주된 자금원은 CIA였다.³⁹⁾ 아시아재단의 모든 활동을 CIA의 첩보활동으로

36) 이순진, 「아시아재단의 한국에서의 문화사업」, 『한국학연구』 제40집, 2016, 9~56쪽

37)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한국학연구』, 제39집, 2015.

38) 장준하, 『장준하문집 3-사상계지 수난사』, 사상, 1985, 86~87쪽

39) 프랜시스 손더스,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유광태·임채원 역, 앞의 책,

회수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단순화’ 하는 것이지만, CIA와의 연관성은 학문적(학자적) 사유가 어떻게 ‘정치적’ 매개를 통해 재생산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즉 아시아재단과 일본 학계, 한국 학계(언론계, 문화계)라는 연결고리가 기실 냉전 체제가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 기행문에서 특히 놀라운 것은 미국의 지원에 의해 ‘일본’이 ‘한국의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1970년대의 기행문에서 일본이 ‘서양문물을 흉내낸 나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⁴⁰⁾과 아주 대조적이다. 이 기행문에서는 식민주의가 ‘인간 간의 해후’로 간단히 환원되고, ‘국적’마저 발전론 앞에서 간단히 소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럼으로써 냉전(반공)이 어떻게 탈식민적 지향을 거세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지명관의 「속 일본기행」(66.9)은 일본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시선으로 쓴 기행문이다. 도쿄에서 오사카, 나라, 교토를 3일간에 걸쳐 다녀온 필자는 신칸센이나 전철, 국철, 관광버스 등을 타고 이동하면서 자신의 눈에 비친 일본의 문화, 정치, 기간산업 등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64년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전후로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지식인의 면모⁴¹⁾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토인비의 일본 기행문이 일본의 한계를 잘 밝혀냈듯이 자신도 그에 견줄만한 글을 쓸 수 있다는 다짐과 자신감이 곳곳에 스며있다.

그런 때문인지 필자는 식민지 백성이었으면서도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 없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우월하게 보지 않는다. 동경 올림픽을 계기로 개통한 신칸센이나 고속도로를 보고 속도경쟁을 하는 일본을 비판하고 있으며, 독일이 자국의 상품을 팔기 위해 일본에 철도를

참조.

40) 김찬삼, 『김찬삼의 세계여행 전6권』, 삼중당, 1973, 일본편 참조.

41) 64년 계엄령 후 해직교수가 되었고, 『사상계』 주간으로 활약하였다. 72년 유신이 선포된 후 ‘재충전을 위한 독일’이 20여 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반(半)망명 상태’가 된다. 조희연, 「20년 일본 망명을 끝낸 전 사상계 주간 지명관」, 『사회평론길』, 1993.10, 213쪽.

부설한 사실에 빗대어 일본이 혹 한국에서도 동일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으니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귀뜸도 잊지 않는다. 아직 서구로 눈이 향해 있어 모방과 추종 단계에서 자국어틀 친대하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선진국을 따라 가려는 일본의 몸부림이 스피드경쟁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는 지적도 서슴치 않는다. 우리가 전후 20년 동안 공산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민권투쟁을 하는 사이, 일본은 국민적 힘을 이렇게 길러 온 것이라면서 분단 한국의 특수성이 발전의 '장애'가 된 점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한다.

전쟁과 죽음을 미화하는 탐미주의로부터 제국주의 침략이 제공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일본 문화에 대한 필자의 이해의 깊이를 일견 느끼게 한다. 이런 탐미주의가 다시 전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경우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의구심은 학자로서의 면모를 확인케 하는 지점이다. 호류지(법류사)의 건축물과 석가삼존을 우리의 것과 비교하고, 우열이 아닌 각 문화의 차이로 해석하는 부분은 비교적 객관적 시선을 담지했음을 인정케 한다. 일본 건축물의 곡선은 우리의 곡선처럼 그 끝이 부드럽게 원을 형성하는 곡선이 아니라 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공적인 것이라 지적한다든지, 도쿄의 반야엔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일본의 음은 짧고 단절적인데 비해 한국의 음은 길고 여운이 있다고 차이를 짚어내는 부분은 탁월한 분석이라 탄미할 만하다. 나라(奈良)의 도다이지(東大寺) 영내에서 우연히 목도한 자위대군을 보고는 섬찟 몸을 떠는 부분은 식민주의의 잔영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피식민 지식인의 의식·무의식적 반응을 보여준다.

재일교포 문제에 대해서는, 교포들을 고립시켜 자멸을 길을 걷도록 하는 '배제와 제거 일변도'의 입장을 버리고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시민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일본에 제안하기도 하고, 한국의 폐쇄성을 비판하는 일본 학자의 조언을 겸허를 수용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한다. 필자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CIA 자금으로 운영된 「세계문화자유회의」의 '일본 지부' 인사들도 있었으나, 특별히 경계도 추수적인 태도도 드러내지 않는다. 근

대화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이나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신적 영향이 더 크다고 진단하는 것으로 보아 『사상계』와 논조⁴²⁾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상계』는 ‘동서고금의 사상을 밝히고 바른 세계관·인생관을 수립하여 보려는 기도’라고 창간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이 기행문에서는 냉전(반공) 논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발전론에 입각해 있다. 신식민주의에 바탕한 일본의 경제적 성장이 다소 우려된다고 언급하지만 굳이 강조하지는 않는다. 자위대를 보고 섬찝함을 느끼면서도 필자는 자신을 피식민지인으로 배치하기보다 ‘이국인’(230)으로 배치한다. 이 기행문은 일본인을 ‘조직과 소속을 넘은 인간’(231), 즉 ‘백지상태의 순수한 인간’으로 회수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국인의 자의식’으로 ‘객관적’(231)으로 보고자 한다.

하지만 필자도 밝히고 있듯,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국민소득 80불(한국)과 600불(일본)의 차이는 단순히 ‘객관적’인 숫자의 차이일 수 없다. 즉 이 차이가 이 글에서는 무중력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기행문은 차이 속에 내포된, 또는 차이가 유발하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격을 ‘삭제’함으로써 차이를 ‘은폐’하고 경계를 늦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일본과 경제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냉혹한 현실’을 말하면서도, 그 차이는 금세 망각된다. ‘조직과 소속을 넘은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발견되기도 어렵지만, 망각된 그 ‘냉혹한 현실’에서 필자가 욕망-실천하고자 하는 ‘부정의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일종의 ‘초극’이 ‘순응-투항’으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는 너무도 많다. 「세계문화자유회의」의 일본 지부 인사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유할 수 있는 것도 ‘객관적’ ‘무중력적’ 태도를 취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기행문은 얼핏보면, 보다 광역 차원의 리저널리즘적 세계인식을 드러내는 듯하다. 식민자와 피식민자였던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제국주의 서구를 ‘수평적’으로 사유하면서 일견 제국주의와 내셔널리즘의 한계를 초

42) 창간호, 「편집후기」.

극하는 잉여를 보여 주는 것 같다. 얼핏보면 이 기행문이 신식민주의-발전론-냉전의 ‘객관적’ 결합인 것같은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착각인 것은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이라는 점만 보아도 분명해진다. 물론 한국은 그 요구에 능동적·자발적으로 응수하였지만, 바로 그 자발적·능동적 응수 자체가 냉전(반공)논리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중력적·객관적 관계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객관적·보편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엔이나, 그곳에서 결정되는 국제법이 실상 후진국에게 가해지는 선진국의 폭력⁴³⁾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기행문은 신식민주의-발전론-냉전의 ‘객관적’ 결합을 보여준다기보다, 신식민주의-발전론-냉전의 ‘객관적’ 결합이 후진국 국민에게 가한 ‘내면화’의 지점을 보여 준다.

아서구 기행문은 피식민의 피해의식을 봉인하고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를 해금시킴으로써, ‘전후 일본’의 리저널리즘적 재편 욕망인 ‘새로운 아시아 보편’에 의식·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친일계 지식인을 환기한다. 이는 일본 내에서 ‘전후 일본’이라는 내러티브가 전쟁책임과 가해의식을 봉인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연출한 것과 동격이다. 일본에서 ‘전후’는 ‘평화, 민주주의, 경제성장으로의 가치공간’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선을 위시한 식민지 및 점령지를 ‘소거’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일본은 ‘냉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체제’에 편승해 ‘제국주의의 과거’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스스로 아시아에 대한 책임을 ‘봉인’하면서 새로운 탈아입구(脫亞入歐)의 노선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제국주의와 아시아를 망각하면서 ‘책임’을 ‘피해자 의식’으로 대체했으며, ‘아시아 보편’을 재편성하여 ‘신식민주의적 아시아’를 만들고자 했다. 가해책임에 대한 자각을 일본인의 자기해방의 길로 정향하고자 했던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⁴⁴⁾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3) 阿部浩己, 『國際法の暴力を越えて』, 岩波書店, 2010.

44) 나카노 도시오, 『‘전후 일본’에 저항하는 전후사상』,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기

아서구 기행문은 식민지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제국주의 식민 모국의 ‘아시아 보편’을 ‘가야할 길’로 제시하는 ‘신식민주의-발전론-냉전의 결합’의 내면화 단계를 확인시킨다. 젠더의식은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기서의 ‘비(非)젠더’는 여성젠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남성젠더’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발전론의 젠더가 ‘남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⁴⁵⁾ ‘새로운 아시아 보편’의 젠더도 남성이었다. ‘새로운 아시아 보편’에 의해 ‘제국주의’와 ‘젠더’는 봉인되고 있었다.

2.3 비서구 기행문: 네 개의 ‘아시아 리저널리즘’과 성적 은유

비서구 기행문에서 가장 눈여겨 볼 지점은 타자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기에 우리의 타자는 주로 서구로 불리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었다. 비서구 기행문은 해방 후 세계가 시선에 들어오면서, 스페인, 이집트, 이탈리아, 캄보디아, 인도, 이란 및 아프리카 등을 우리의 타자로 설정하기 시작했음을 확인시킨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심이었던 서구의 범위가 스페인, 이집트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까지 포괄하면서 비교적 단일했던 ‘세계’의 범주를 다각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제3세계 현실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서구 지역에서 눈여겨 볼 대상은 인도와 아프리카, 베트남이다. 인도는 비폭력 저항을 이끈 간디와 노벨상 수상자인 타고의 나라로서, 1930년대 중반까지는 긍정적 참조대상인 동시에 경외와 흠모의 대상이었다.⁴⁶⁾ 하지만 해방 후에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되는데, 1955년의 반둥 회의에 초

획, 『‘전후’의 탄생』, 그린비, 2013, 73쪽.

45) 『사상계』의 근대화 전략이 남성젠더적이고 여성-개인은 소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 앞의 글에서 상세히 고찰한 바 있다.

46) 이옥순, 『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인도』, 푸른역사, 2006.; 김복순, 『아일랜드 문학의 전유와 민족문학 상상의 젠더』, 『민족문학사연구』 44, 2010, 340~371쪽, 참조

대받지 못한 데다 중립국을 표방한 네루의 사회주의 채택 이후 인도는 야만의 표상으로 조롱과 냉소의 대상으로 묘사되기 시작한다. 인도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은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악의에 찬 비판 하에 야만의 표상으로 제시되었다. 인도에 대한 적대성은 서구의 냉전(반공)이데올로기를 한국이 '과잉전유'한 데서 비롯된다. 인도에서는 각종 회의 때 중공과 북괴의 국기를 게양했지만 한국 국기는 없어 게양하지 못한 사례도 벌어진다. 더구나 인도 관리는 '미국대사관'에도 없느냐고 질문하여 한국이 미국의 '우산' 하에 있음을 재차 확인시키기도 하였다.⁴⁷⁾

서화숙의 「제3차 아·아 경제회의에 다녀와서」(62.2)는 회의 개최지인 뉴델리와 함께 인도를 조롱과 야유의 대상으로 호명한다. 이 회의는 1958년부터 개최되어 오던 바, 구미대륙의 원료공급지로 전략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경제블럭으로 조성하여 경제협조를 꾀하고 지역내 경제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즉 리저널리즘의 재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어, 특히 중공이나 북괴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 삭제요청이 빈발하는 등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부각시킨다. 발전론보다 냉전(반공)적 우선성이 확인된다.

인도는 중립국인데다 네루의 정부가 사회주의여서 여러 면에서 야만의 대상으로 격하되고 있었다. 식량공급이 원활치 못하면서도 소를 신성화하는 면이라든지, 평화와 중립을 취하면서도 작은 항구도시 고아(Goa)를 무력으로 점령한 네루 정부의 모순적 정책, 사회주의이면서도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금이 한국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등을 들어 중립국 인도의 사회주의 정책들을 비판한다.

이만갑의 「사역오천만의 빈곤·인도」(63.12)도 위와 동일한 시선 속에서 인도를 야만과 결부시킨다. 출입국 관리소의 시설부족과 직원들의 무

47) 서화숙, 「제3차 아·아 경제회의에 다녀와서」(62.2), 230쪽

능력, 성우(聖牛) 문제, 카스트제도, 빈곤과 질병, 무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등의 게으른 성격 등을 비판한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문기자를 특파하여 민간외교를 도모한다든가, 인도 학자들과 공동연구 할 것을 제안하면서 탈식민적 지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선진 국가로만 유학을 하면 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들끓고 있는 신생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에 필요한 산 지식을 창조하기 어렵다(203)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분쟁 문제를 겪고 있다는 발언 뒤에 언급된다. 즉 인도에 대한 긍정적 시선은 공산국가들과 대립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획득되는 것이다. 다른 중립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그동안 여러모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이라고 비난하는 등 인도나 한국이 모두 공산당을 너무 몰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한다. 인도의 탈식민 지향이 냉전(반공)서사와 길항, 포섭되는 양 극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은 한 민족임에도 왜 갈라졌냐는 질문에 그것은 인도가 파키스탄과 갈라져 있는 것과 같다(48)는 발언은 양국 지식인들이 분단문제에 대해 서로 공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분단의 원인은 이데올로기, 종교면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분단 현실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으로 강한 자주의식을 거론하는 부분은 탈식민적 입장이 강조되는 지점이다.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음에도 전통을 지키며, 근대화への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처럼 자학적이지도 않으며, 외국의 것을 모방하려는 점도 보이지 않는다고 칭찬한다. 이는 하경덕이 인도에서 잠재력을 발견한 것과 동격이다.⁴⁹⁾ 위에서 보듯, 인도는 기본적으로 냉전(반공)의 시선 속에서 묘사되고 있지만, 탈식민적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채택되는 이중적 참조의 대상이었다.

여성이 본 인도는 앞에서 본 남성 필자들과는 좀 다른 인식을 보여 준다. 박영숙의 「힌두의 나라 인도를 다녀보고-여성이 본 인도」(62.5)는

48) 서화숙, 「제3차 아·아경제회의에 다녀와서」(62.2), 208쪽

49) 하경덕, 「인도에 다녀와서」, 『신천지』, 1947.7.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면밀히 살피면서 인도의 문화, 풍습, 여성노동자, 가족제도, 주거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남성과 여성을 비교의 관점에서 관찰한다. 예를 들면 소를 신성시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점에서는 남성 필자들과 공통적이었으나, 소 문제를 ‘牛糞 냄새’로 인식하면서 사람의 몸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온 도시 전체에서 풍기는 ‘냄새’로 전유한다. 여성들의 ‘감각적 인식’⁵⁰⁾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또 복장과 관련하여 남성들은 서구화 된 반면 여성들의 복장은 아직 전통적인 ‘짜리’에 결박되어 있다고 진단한다거나, 여성들이 대체로 복장 등에서 통일성이 있는 반면, 남성들은 통일성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고 지적한다. 남성들이 더 서구적이고 문명적이며,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전통적인 풍습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거리나 식당에 여성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읽어내는데, 이는 남성 필자들의 글에서는 목도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힌두교 교도들이 사는 도시는 더럽고 질서 없는 데 반해 기독교 도시인 방갈로르를 깨끗함, 질서, 조용함으로 상징화 하는 부분은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압권은 전화기 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을 국가건설 주체로 호명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산업주체 뿐 아니라 국가건설 주체가 될 것임을 예상, 희망하면서 인도에서의 장애자 복지 및 주택복지 개념에 주목한다. 타지마할 궁전을 보고는 그 궁전을 짓느라 동원된 수많은 ‘고혈의 착취’를 떠올리면서 인도의 카스트제도 및 지구상의 계급제도를 비판하기도 한다. 인도의 장례 풍습을 소개 하면서는 ‘만민은 누구나 신 앞에 균등’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냉전(반공)보다는 발전론 우선성의 입장에서, 현대화가 진척되어 50%의 문맹을 척결하고 행복해지기를 소원하지만 서구 추종적이지는 않다. 또 여성을 산업화의 전사로 호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복지 개념에 입각해 논하고 있다. 단지 ‘젠더 기제를 이용한 여성동원’에 머

50)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제1장 및 강신재론 참조.

무는 것이 아니라 ‘계급제도 하 착취’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평등 개념을 앞세우면서 젠더 기제를 이용해 여성을 동원’하는 것과 다르다. 인도인들의 태도 중 ‘외래풍속이나 문명의 맹종에 급급하지 않는 태도’를 배워야 할 것이라 당부하는 점에서, 또 앞서 본 문화 풍속을 서술하는 입장에서도 서구=우월, 인도=야만이라는 등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냉전(반공)보다 발전론 우선성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앞에서 본 남성 필자의 글과 달리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엿보이긴 해도 냉전(반공) 이데올로기가 드러나지도, 강조되어 있지도 않다. 또 감각적 인식을 동원하는 점도 남성 필자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필자의 ‘젠더’에 따라 사물이 얼마나 달리 인식되는지 박영숙의 기행문은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조의설의 『아프리카 기행』(61.11)이 단연 압권이다. 이 글은 조의설이 ‘아프리카 친선사절단’(단장 백선엽)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19개국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을 기술한 것이다.⁵¹⁾ 한국정부는 1961년 7월부터 3개월 간 미주, 중근동,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의 5개 지역 84개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아프리카는 제5반이었다. 5개 지역 중 『사상계』에 소개된 기행문은 조의설의 『아프리카 기행』 하나라는 점에서 『사상계』가 다른 지역보다 특히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친선사절단을 파견한 목적은 1) 군사혁명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여 우의를 더욱 증진함. 2) 경제·문화 분야에서 상호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함. 3) 국제연합에서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요청함⁵²⁾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개인적 차원의 여행담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군사정변 이전부터 이집트의 나세르가 주도한 군사혁명을 비롯한 제3세계 혁명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박정희⁵³⁾

51) 1962년 『아프리카를 가다』, 문호사로 출판된다.

52) 양준석, 「1961년 한국의 친선사절단 파견과 지역인식의 확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7권 2호, 2016, 171-205쪽.

였고, ‘민주주의를 재건하자’는 군사혁명의 진의를 해명하는 한편, 그동안 외교에 주력하지 않았던 대상인 신흥 군소국가를 독려하여 결과적으로 유엔에 가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1960년 이른바 ‘아프리카의 해’를 맞아 17개국이 대거 독립을 성취했는데, 1955년 반둥회의에 초대되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제3세계에 대한 관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었다.

이 기행문은 기본적으로 탈식민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시각을 드러낸다. 아프리카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시각을 수정하면서, 아프리카를 미개, 야만으로 개념화 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아프리카는 서구의 시각으로 발명되었으며,⁵⁴⁾ 그에 입각한 오리엔탈리즘은 아프리카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무지를 오랫동안 확대 재생산 하고, 아프리카를 타자화· 주변부화 해왔다. 이 글은 오리엔탈리즘 시선을 ‘반성의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인종적 유표성 중 하나인 피부색을 오히려 ‘다양성’으로 해석한다. 아프리카 여성들의 악세사리 문화도 아프리카가 그 기원이라 언급하는 부분은, 굳이 에드워드 사이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왜곡된 아프리카의 역사를 울곧게 ‘다시 기입’하는 것이다.

주의설이 그간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했던 서구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지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아프리카인들의 수렵, 채취 생활을 미개 야만으로 규정하지 않고 평화와 순수로 자리매김 하면서, 삶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문명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자연 속의 일부로 사는 아프리카의 삶을 지배·착취·야만으로 규정한 것은 서구 제국주의라고 비판한다. 닷실 문화유적 등을 미루어 볼 때 아프리카에도 수천 년간의 휘황찬란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구 제국주의는 아프리카인들의 식량사정은 도외시하고 상업용 작물 증산에만 몰두하였고 그 결과 무궁무진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지나치게 가난하다고 비판한다. 셋째, 서구 식민주의는 의도적으로 아

53) 김명섭, 『한국외교사에서 아프리카와 중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5호, 2013, 92~93쪽

54) 리처드 리드, 『현대아프리카의 역사』, 이석호 역, 삼천리, 2013, 655쪽.

프리카의 교육 문제를 도외시하였다고 비판한다. 특히 벨기에의 부권주의 식민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문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에서 유래한다고 강조한다. 넷째, 서구 식민주의의 편익주의로 말미암아 각국의 경계선을 제멋대로 정한 까닭에 현재 아프리카는 동족 분열의 비극을 맞고 있다고 비판한다. 같은 종족임에도 영령, 불령으로 나누어져 있어 ‘통합 아프리카’ ‘판 아프리카니즘’ 형성에 큰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의설의 다문화적, 탈식민적 사유는 냉전(반공)과 개발(발전)이라는 시선에 의해 비껴지게 된다. 아프리카인들의 반식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식민지주를 미워하면서도 그들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등 식민주의를 내면화 한 양상을 지적하고, 민족의식보다 부족(종족)의식이 강해 신흥국가 건설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워낙 건설 욕구가 강한 만큼 한국은 적극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프리카가 요구하는 기술이민과 학생 및 교수 교환 등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내비치면서, 조의설이 강조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의설이 우려하는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중공이나 소련이 침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소련제 비행기를 도입한 가나(중립국)가 있고, 기니아에 막대한 식량을 제공한 중공이 있다. 즉 아프리카는 자원개발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 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스트라는 것이다.

그들의 중립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인데...(중략)...이것을 선불리 서구적인 개념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기보다 실제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과 접하는 데서 얻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중립주의라 하더라도 밖으로는 중립을 표명하지만 반공을 국시로 하며, 사회주의도 계급의식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투쟁이 아니라 혹은 사유를 부정하는 소위 맑스식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기네의 종족이 다같이 잘 살자는 뜻의 주의이다. (203)

위에는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냉전이테올로기가 반공과 만나는 지점이 드러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의설의 탈식민적 사유의 종착점은 개발과 냉전(반공)이테올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아프리카는 냉전(반공)과 개발의 중첩적 대상이었던 셈이다.

또 조의설은 개발(발전)의 관점에서 이중적 오리엔탈리즘을 드러내고 있다. 즉 서구 제국주의의 착취와 지배를 거부하면서도, 냉전(반공)이테올로기에 기반한 한국의 개발(침투)은 정당화 하는 것이다. 1955년 반동회의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단결’을 드높인 것이었다면,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아프리카 대표자들이 모인 1961년의 아크라회의(전 아프리카 인민회의)는 ‘서구 제국주의여,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가라’였다.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지배 하에서 아프리카를 해방시키자는 운동이었다.⁵⁶⁾ 한국의 친선사절단은 서구 제국주의가 손을 떼고 나가는 자리에 새로 들어서고자 욕망하는 또 다른 ‘개발자’였던 셈이다.

한국의 친선사절단 파견은 위와 같이 아시아 리저널리즘을 확장하는 것이었으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이중적 오리엔탈리즘’과 공명하는 것이었다. 아프리카에 공산정권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 하에 ‘냉전(반공) 한국’을 침투·확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서구 제국주의의 ‘개발’ 패러다임이 냉전(반공) 한국에 의해 탈식민적 아프리카 내셔널리즘 수립에 부메랑이 되어 꽂히고 있었다.

박이문의 「베일 쓴 여인의 나라 모룩코-모룩코 기행」(63.12)은 몇가지 면에서 특이하다. 위의 아프리카 기행문들이 반식민주의를 드러내면서도 결국은 냉전 서사로 귀결된 것과 달리, 이 기행문은 반식민주의를 이야기 하지만 냉전 서사로 귀착되지 않는다. 즉 냉전(반공)보다 발전론 우선성에 기초해 있다. 또 현대화 문제를 초점화 하면서 후진국 문화를 여성성

55) 문체안, 「내가 본 아프리카의 지도자들」, 『사상계』, 65.2. 여기에서도 사회주의자연맹이란 정당을 만들어 통치하고 있는 통일이랍공화국의 나셀대통령과 적극적 중립주의를 표방한 가나의 앙크루마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56) 「아크라회의와 아프리카의 꿈」, 『사상계』, 59.6, 106쪽.

으로 상징화 하는 등 성적 은유를 확인시킨다. 모로코인들의 거주지인 메디나의 이모저모를 언급하면서, 메디나의 비좁음, 가난, 냄새와 더불어 모로코 남자와 여자들의 의복이 후진국의 표상으로 언급된다. 아랍 남자들이 입는 자블라와 여성들이 쓰는 베일은 불편한 것으로, 후진성의 표상으로 언급된다.

아랍인들은 거치장스러운 아랍복을 입고 여인들도 베일을 쓰고 있다. 프랑스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며 그들의 교육을 직접 받고 있으면서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그들의 고착성에 의아심을 느낀다...(중략)...값싼 기생처럼 자기의 정조를 훌쩍 벗어버리는 것도 딱한 노릇이지만, 과거에 대한 고착성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남의 것을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랍과 또 그러한 자신이 없이는 발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 없다. (292)

여기서는 식민주의가 비판되기는커녕 문화적 시혜의 일환으로 찬사되고 있으며, 오히려 자국의 전통을 지키려는 아랍인들의 생활태도가 후진국의 고착성, 야만, 미개 등으로 비판되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가 현대화의 길로 해석되고 있으며(295), 서구 제국주의, 식민주의 입장에서 아랍인들이 비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종교적 뿌리를 강조하는 제정일치 제도 또한 현대화의 장애로 기능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랍식 의상을 버리는 것은 여성이 정조를 버리는 것으로 성적 은유화 하고 있다. 아랍식은, 그 무엇이건 간에, 현대화에 장애가 되는 '버려야 할' '후진성' 일 뿐이다. 의복 개선이 정조를 버리는 것으로 성적 은유화 된 부분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베일이 내포하는 '여성성'을 '고착성'으로, '발전'은 이러한 여성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의미화 되기 때문이다. 즉 모로코=후진성=여성성=저개발, 프랑스=선진성=남성성=발전의 의미화가 피해지고 있다.

이 기행문은 식민주의를 거의 비판하지 않으며, 식민주의=현대화=질서

=문명으로 해석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있다. 1912년 이래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면서 질서가 서고 현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으며(295), 아랍인들은 프랑스인을 보고 식민주의자라 욕하면서도 자기들이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 한다(293)면서 오히려 모로코인의 내면화 된 이중성을 당연시 한다. 또 프랑스인들에게 꽤 친절한 모로코인들을 단지 ‘친절한 인간성’으로 칭찬해마지 않는다. 더구나 축제에서 행해진 ‘기사 놀음’(말 타고 장총을 들고 달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늘에 발포하는 놀이)을 가리켜 옛날 아랍인들이 스페인을 거쳐 프랑스의 일부까지 점령했던 모습을 상상케 하는 판타지라고 해석한다. 이를 ‘식민주의에 맞서는 구식민주의의 상상’으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간단하게 판타지로 설명함으로써 신/구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은폐’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이런 시선 하에서, 돈은 그저 잠깐 맡아 두는 것이라고 무소유를 말하면서 한국 사람, 모로코 사람, 프랑스 사람이 모두 형제라면서 평등을 이야기 하는 모로코인은 ‘이상스럽게 ‘애교’ 있는 것으로만 비쳐진다. ‘무소유’와 ‘평등’이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혀 천착되지 않는 것이다. 무소유와 평등을 공산주의와 결부시켜 사유할 가능성이 이 기행문에서는 아예 거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공산주의가 저발전으로, 근대화의 가능성을 상실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행문의 필자가 식민주의를 근대화 하고만 연결짓지 냉전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후진국 국민으로서 반성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그동안 아프리카·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닌가 반문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하지만 곧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카메라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정당화 하고 만다. 그러나 ‘갈라진 조국의 땅을 한시라도 생각지 않을 수 없는’(296) 이 기행문 필자의 카메라는 ‘갈라진 땅’과 연관된 부분보다 ‘발전(재건)’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또다른 식민지 근대화론자임을 훨씬 더 부각시켜 준다. 이러한 카메라 앞에서 냉전=발전으로 등치화 되

고, 식민주의=근대화로 정당화 되는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김기두의 「에집트는 阿洲 운명의 키(鑰)」(64.9)는 정부 주선으로 동남아, 중동, 서구 제 국가를 역방했는데, 그 중 특별히 이집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상계』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 기행문은 여타의 『사상계』 기행문처럼 방문 국가를 야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상계』 중 유일한 기행문이다. 식민주의를 비판하지만 그보다는 식민주의를 극복해낸 해당 국민들의 긍정적인 면을 초점화 하여 조명한다.

물론 단점도 지적한다. 이집트행 비행기가 전혀 예정시간에 맞추지 않고 만만테인 점, 아직도 민중이 덜 깨어 있는 점, 남녀관계가 아직도 동양적인 격리 그대로인 점, 여성들이 아직도 베일을 쓰고 있는 점, 청춘남녀의 교제가 밀행되는 점 등은 고쳐야 할 문화로 언급된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력적인 점, 내면에 깊이 잠겨 있는 정력적인 힘, 현대문명을 동원해도 어려울 정도로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불가사의한 위대한 문명, 나일강의 수로를 바꾸어 사막을 옥토화 하고자 지은 아스완댐(20세기의 피라미드로 불린다)의 위대함, 영국으로부터의 참다운 해방의 계기가 된 수에즈운하 분쟁, 생활 속까지 배어 있는 회교정신, 발전에 앞장서면서 민족적 자부심과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지식인들, 이런 점들이 이집트의 큰 장점이자 자랑거리라고 필자는 지적한다. 지식인들은 나세르 정부를 지지할 뿐 아니라 아랍민족의 나아갈 길을 똑바로 제시한다고 한다. 서구문화를 맹종하는 지식인은 없으며, 자신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높다고 한다. 이집트의 주체성이 지식인들의 참다운 역할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운명의 키를 쥔 중대한 위치를 공인받고 있다(217)고 일갈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자신의 생리가 각각 따로 있다고 전제하면서, 한국도 이집트와 같이 선진국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에즈 분쟁을 통해 영국과의 항쟁 속에서 제국주

의를 이겨낸 민족혼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친미도 친소도 아닌 독자적 노선을 아랍민족의 갈 길로 제시한다. 즉 중립주의의 입장이 드러난다.

‘발전론’의 입장이지만 경제적 기초보다 정신적 기초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도 여타의 기행문들과 궤를 달리 한다. 서구적 근대화 모델을 비판하면서 우리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시선이며, 경제적 물질문명보다 정신적 면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미 냉전(반공) 논리를 벗어나 있다. 새로운 민족적 관점을 충동하면서 리저널리즘을 재편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 보여 준다. 이러한 욕구는 ‘중립’적 관점에서 ‘친미도 친소도 아닌 보편’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선이라 할 수 있다. 친미·친소를 둘 다 부정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냉전을 부정하는 관점이다.

정부를 지지하는 지식인들도 정쟁을 일삼지 않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극한투쟁 없이 평화리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독재국가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면서, 정력과 금력의 소모 없이 빨리 발전을 하여 후진성을 극복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식의 민주주의에 내재될 수 있는 독재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 ‘유보되는 평화(자유)’란 결국 그간 한국에서 묵도되었던 바 ‘발전 최우선’의 ‘독재’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탁희준의 「내가 본 월남의 향방」(65.5)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64.9) 직후 쓰여진 기행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식민지의 경험, 공산주의의 위협, 비민주적 정체의 존속⁵⁷⁾이라는 문제를 공유한다. 베트남은 우리를 비추는 ‘외부의 거울’인 동시에 참전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 보게 하는 ‘내부의 거울’이기도 했다. 이 글은 베트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 하에서 쓰여진다. 기

57) 흔히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 문제로 식민지 경험,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만 거론하나, 김예림은 특히 비민주적 정체의 존속이라는 문제점을 강조한다. 김예림, 「정체(政體), 인민 그리고 베트남(전쟁)이라는 사건」, 『역사문제연구』, 제32집, 2014, 17쪽.

본적으로 프랑스 식민주의가 남베트남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지적함으로써 반식민주의적 입장을 드러낸다. 하지만 국제공산당으로부터 북베트남을 격리시켜 남베트남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삼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반공) 지향을 확인시킨다. 마치 6.25의 대동란, 4.19 이후의 분란이 겹친 듯하다는 진단은 같은 분단국의 입장에서 공명한 결과일 것이다. 즉 발전론보다 냉전(반공) 우선성에 기초해 있다.

월남의 오늘 사태는 극단한 표현을 하자면 프랑스의 식민정치가 뿌린 씨를 거두어 들이는 과정이라고 보였다...(중략)..같은 아시아 종족 사이의 관계이므로 중국 통치의 흔적이 피나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176)

하지만 프랑스의 개입은 비판하면서도 중국의 식민통치와 미국의 전쟁 개입은 비판되지 않고 있다. 이질적인 문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의 식민통치를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는 남베트남인들의 국민성도 비판되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결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 베트남을 만나도 적당히 인사하고 헤어진다면서 그만큼 깊이 파고드는 사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데, 이 기행문에도 언급되어 있듯, 이미 남베트남에서 상당부분 적과 동지의 경계가 해체되었을 뿐 아니라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남베트남인이 많았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필자의 말처럼 남베트남의 45개주 중 25개 이상이 북베트남의 지배로 떨어졌고, 남베트남은 부패 정권으로 온통 타락의 온상이지만, 북베트남은 생활개선과 교육사업 등으로(179) 이미 남베트남에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불국 통치 때 살기가 지금보다 나았다.” “고(Co) 정권의 독재는 미국의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 전쟁은 베트남인의 전쟁이라기보다 미국인의 전쟁이다” 등등 묘한 삼단논법이 전개될 만도 하였다...(중략)...월남에 평온을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 고매한 이상과 사투가 이른바 ‘미국

의 이익'으로 환원되고 보다 강한 정부수립을 위한 협조는 '독재의 방조'로 오인되고, 대공업 발전의 경제원조는 시장개척으로 착각되고, 드디어는 월남을 위한 노력을 월남인이 외면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날 것이 뚜렷하였다... 칸 장군과 테일러 미 대사의 대결은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좋은 자료가 될런지도 모른다.

즉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 타일렀을 것이고, 월남은 전란이 미·쏘 양대 세력 대립의 부산물로 설명되었을 것이니.....(178)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의 칸 정권마저도 베트남 전쟁을 '미·쏘 양대 세력 대립의 부산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필자는 애써 미국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수호' 전쟁으로 개념화 한다. 즉 '민주주의 옹호 논리로서의 반공주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며,⁵⁸⁾ 한국이 냉전(반공)의 핵심임이 확인된다. 베트남과 동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했고, 또 베트남과 동일하게 냉전(반공)논리로 인해 내전(6.25)까지 경험했으면서도 이 기행문의 필자는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적 관점을 우선성으로 하기보다 냉전(반공)논리를 우선성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서너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듯 공산정권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베트남이 반공주의와 애국주의의 틀에서 한국중심적으로 각색되어⁵⁹⁾ 버린 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해 일본에서 펼쳐진 '베헤이렌(ベ平連):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1965년 4월 첫 시위)은 한국에도, 『사상계』 기행문에도 없었다. 베헤이렌은 베트남 반전운동이었을 뿐 아니라 탈내셔널리즘, 인터내셔널리즘과 연결되어 있었고, 아시아인들의 횡적 연대의 가능성을 표방한 운동이었다.⁶⁰⁾ 이에 비해 한국은 반전운동은

58) 이하나,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앞의 글, 201-241쪽.

59) 김예림, 앞의 글, 15쪽

60) 요시미 슌야,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오석철 역, 산치림, 2002, 247-249쪽.

커녕 자발적으로 파병을 결의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파병 당시 집단적 열광을 보여 준 바 있다. ‘냉전의 유령에 사로잡혀’⁶¹⁾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폐쇄적으로 전유’한 탓에, 아시아 민주주의·민족주의까지 아우르는 아시아 리저널리즘 또는 탈식민적 지향의 측면과 결합하지 못하였고, 냉전(반공) 지향성을 우선성으로 작동케 하였다. 한국에서 베트남(전쟁) 문제는 시민운동, 평화운동, 반전운동 그 어느 것보다도 조우하지 않는다. 베트남 인민의 현실은 의도적으로 도외시 되었다. 권현익의 지적처럼 냉전이 지닌 ‘도덕적’ 문제 및 ‘책임’ 문제로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⁶²⁾ 민족(국가) 재건에 앞장서고자 했던 『사상계』도 이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장세진이 지적하듯 ‘전후 아시아 지역의 가장 슬픈 면모’⁶³⁾일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비서구 기행문에서는 새로운 민족적 관점을 총동하면서 리저널리즘의 재편을 통해 보편을 재구성하려는 의지가 확인된다. 리저널리즘에 대한 적극적·수동적 사유가 둘 다 목도되며, 구체적으로 네 개의 ‘아시아 리저널리즘’으로 구분된다. ‘냉전(반공) 우선성’의 아시아 리저널리즘(서화숙, 탁희준), ‘발전론 우선성’의 아시아 리저널리즘(박영숙, 박이문), 우선성이 작동하지 않은 채 탈식민적 지향을 드러내면서 ‘냉전과 발전론이 결합’한 경우(이만갑, 조의설), ‘중립주의’의 아시아 리저널리즘(김기두)이 그것이다. ‘반제국(식민)주의 우선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냉전(반공)을 ‘과잉전유’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발전론 우선성’의 경우 발전의 핵심은 ‘경제력 성장’이었지, 센(Sen)이 말하는 ‘자유의 신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적 관점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서화숙, 이만갑, 조의설, 김기두)와 그렇지 않은 경우(오영숙, 박이문)로도 나눌

61) 권현익,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박충환·이창호·홍석준 역, 산지니, 2016, 338쪽.

62)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이한중 역, 민음사, 210, 12쪽.; 『학살, 그 이후』, 유강은 역, 아카이브, 2012.;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박충환·이창호·홍석준 역, 위의 책, 참조.

63) 장세진, 『슬픈 아시아』, 푸른사상, 2012, 9쪽

수 있었다. 중립주의는 단 1편에 그쳐 『사상계』의 지식인들이 중립주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적극적으로 사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립주의는 아시아 리저널리즘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이었으나, ‘냉전’은 거부하면서도 ‘반공 지향’은 유지하고 있어 리저널리즘을 재편하고 보편을 재구성 하는 탈식민적 사유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여기서는 후진성=여성성=저개발, 선진성=남성성=발전이라는 성적 은유가 작동하고 있었다.

3. 맺는말

『사상계』 기행문은 여타 잡지의 기행문과 매우 달랐다. 순수 여행담 성격의 글이라기보다 시찰담, 학술 교류, 학계 방담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사상계』가 스스로를 ‘종합학술지’로 규정하고 독자층을 지식인과 학생으로 설정한 점, 『사상계』의 근대화 전략의 토대가 ‘학술교양’에 해당하는 점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런 탓에 『사상계』에 게재된 글은 시사·교양·문예의 이름으로 연재된 글들도 거의 전문적인 학술논문에 가까웠다.

서구/아서구/비서구 기행문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근대’ ‘국민국가’ ‘발전’에 대해 상상하고 있었다. 서구 기행문은 오리엔탈리즘 시선으로 서구를 한결같이 ‘보편’으로, ‘발전’으로 표상하고 있었다. 서구 기행문 필자들은 ‘제국주의의 눈’으로, 저개발의 후진국인 한국이 ‘발전’하려면 서구의 문명(화)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형태로 역설하였다. ‘서구’가 ‘의심의 여지없는’ ‘근대화의 모델’로 인식되었다. 식민주의가 비판되지 않고 오히려 근대화의 논리로 옹호되고 있었으며, 반공주의가 근대화와 결합하면서 ‘승공’(勝共)으로 가치화 되고 있었다. 「동백림과 서백림」에서 보듯 냉전(반공)지향이 발전론과 결합해 승공 논리를 드러내면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었다. 따라서 리저널리즘에 대한 재편의식은 발견

되지 않았다. 즉 보편을 재구성하려는 사유도, 시도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여기서 문명론적, ‘발전(재건)’의 젠더는 남성이었다.

아서구 기행문은 피식민의 피해의식을 봉인하고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를 해금시킴으로써, ‘전후 일본’의 리저널리즘적 재편 욕망인 ‘새로운 아시아 보편’에 의식·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지식인의 사유를 환기하였다. 얼핏보면, 보다 광역 차원의 리저널리즘적 세계인식을 드러내는 듯하고, 식민자와 피식민자였던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제국주의 서구를 ‘수평적’으로 사유하면서 일견 제국주의와 내셔널리즘의 한계를 초극하는 잉여를 보여 주는 것 같지만, 식민지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제국주의 식민 모국의 ‘아시아 보편’을 ‘가야할 길’로 제시하는 ‘신식민주의-발전론-냉전의 결합’의 내면화 단계를 확인시킨다. 이는 일본 내에서 ‘전후 일본’이라는 내러티브가 전쟁책임과 가해의식을 봉인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연출한 것과 동귀이다. 젠더의식은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때의 ‘비(非)젠더’란 남성젠더적인 것이었다.

비서구 기행문에서는 새로운 민족적 관점을 충동하면서 리저널리즘의 재편을 통해 보편을 재구성하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리저널리즘에 대한 적극적·수동적 사유가 둘 다 목도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네 개의 ‘아시아 리저널리즘’으로 구분되었다. ‘냉전(반공) 우선성’의 아시아 리저널리즘(서화숙, 탁희준), ‘발전론 우선성’의 아시아 리저널리즘(박영숙, 박이문), 우선성이 작동하지 않은 채 탈식민적 지향을 드러내면서 ‘냉전과 발전론이 결합’한 경우(이만갑, 조의설), ‘중립주의’의 아시아 리저널리즘(김기두)이 그것이다. ‘반제국(식민)주의 우선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냉전(반공)을 ‘과잉전유’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발전론 우선성’의 경우 발전의 핵심은 ‘경제력 성장’이었지, 센(Sen)이 말하는 ‘자유의 신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적 관점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서화숙, 이만갑, 조의설, 김기두)와 그렇지 않은 경우(오영숙, 박이문)로도 나눌 수 있었다. 중립주의를 지향한 기행문은 단 1편에 그쳐 『사상계』의 지식인들

이 중립주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적극적으로 사유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중립주의는 아시아 리저널리즘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이었으나, ‘냉전’은 거부하면서도 ‘반공 지향’은 유지하고 있어 리저널리즘을 재편하고 보편을 재구성 하는 탈식민적 사유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비서구 기행문에서는 후진성=여성성=저개발, 선진성=남성성=발전이라는 성적 은유가 작동하고 있었다. 즉 『사상계』 기행문에서 ‘발전(재건)론’은 젠더의제가 실종(소거)된 기행이었다.

『사상계』는 새로운 민족적 관점을 충동하면서 리저널리즘의 재편을 통해 보편을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리저널리즘에 대한 적극적·수동적 사유를 보여 주지만,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폐쇄적으로 전유’한 탓에 아시아 민주주의·민족주의까지 아우르는 아시아 리저널리즘 또는 탈식민적 지향의 측면과 결합하지 못하였다. 그보다는 오히려 냉전(반공) 지향성이 강하게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이 지닌 ‘도덕적’ 문제 및 ‘책임’ 문제에는 거의 접근하지 못했으며, 아시아 리저널리즘도 시민운동, 평화운동, 반전운동 그 어느 것보다도 조우하지 못한 단계에 놓여 있었다. 당대 그 어느 매체보다도 민족(국가) 재건에 앞장서고자 했던 『사상계』도 이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발전론은 젠더의제가 실종(소거)된 것으로서, 『사상계』에서 발전의제와 젠더의제의 통합은 상상하기 어려운 요원한 것이었다.

앞으로 남은 문제가 있다면 『사상계』와 동시대에 간행된 여러 기행문들과 비교하면서 1940년대 및 1970년대와의 인식틀의 변화를 추적하는 일이다. 아울러 여성 필자와 남성 필자의 글에서 드러나는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차이도 함께 고구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발(발전)의제와 젠더의제의 통합이 언제,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탐색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사상계』

2. 단행본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전후의 탄생』, 그린비, 2013, 1~327쪽.

김진웅, 『냉전의 역사, 1945~1991』, 비봉출판사, 1999, 1~326쪽.

김현주, 『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1-296쪽.

박태균, 『원형과 변용-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 출판부, 2007, 1~418쪽.

사상계 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1~428쪽.

장세진, 『슬픈 아시아』, 푸른사상, 2012, 1~312쪽.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학강의』, 푸른숲, 2014, 1~456쪽.

마루카와 데쓰시, 『리저널리즘』, 백지운·윤여일 역, 그린비, 2008, 1-216쪽.

그렉 부라진스키,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책과 함께, 2011, 1~504쪽.

마고사키 우케루,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양기호 역, 메디치, 2013, 1~392쪽.

베르트 슈퇴버,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최승완 역, 역사비평사, 2008, 1-264쪽.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김원기 역, 갈라파고스, 2013, 1~508쪽.

프랜시스 손더스,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유광태·임채원 역, 그린비, 2016, 1~776쪽.

町村敬志, 『開發主義の構造と心性』, 御茶の水書房, 2011, p.1~465.

村松安子, 『「ジェンダーと開發」論の形成と展開』, 未來社, 2005, p.1-245.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1992, p.1~332.

3. 논문

-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50호, 2013, 9~33쪽.
- 김복순, 「낭만적 사랑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 --1950년대 『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KRF-2008-327-A00441), 『어문연구』 151호, 2011, 285~317쪽.
-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 냉전지(知)의 젠더-~2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73~125쪽.
-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한국근대문학연구』, 22집, 2010, 205~230쪽
- 김예립,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상허학보』 20, 2007, 311~345쪽.
- 백원담, 「냉전기 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의 형성과 재편 1」, 『중국현대문학』 42, 2007, 31~84쪽.
- 양준석, 「1961년 한국의 친선사절단 파견과 지역인식의 확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7권 2호, 2016, 171~205쪽.
-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한국학연구』, 제39집, 2015, 221~276쪽.
- 이상록,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10, 1~258쪽.
- 이순진, 「아시아재단의 한국에서의 문화사업」, 『한국학연구』, 제40집, 2016, 9~55쪽.
- 이하나,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사회와 역사』, 제95집, 2012, 201~241쪽.
- 임종명, 「탈식민 초기 남한 국가 엘리트의 아시아 기행기와 아시아 표상」, 『민족문화연구』 52, 2010, 143~198쪽.
- 임종명, 「해방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표상과 대한민족의 구성」, 『사총』 67, 2008, 503~102쪽.

- 장세진, 「역내 교통의 (불)가능성 혹은 냉전기 아시아 지역 기행」, 『상허학보』 31, 2011, 123~171쪽.
-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학연구』 105, 2012, 321~364쪽.
- 지상현,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기원과 등장-냉전 초기 집단 동맹 구상의 실패를 중심으로」, 연세대 지역학 석사논문, 2010, 1~191쪽.
- 홍태희, 「여성주의 경제발전론과 경제성장론」, 『여성주의 경제학』, 한울, 2014, 109~123쪽.
- 이마누엘 윌러스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냉전시대 지역연구」, 노엄 촘스키 외, 『냉전과 대학』, 정연복 역, 당대, 2001, 130~132쪽.

Abstract

A Perspectives of Asian Regionalism and Gender of Development in Travelogue of *Sasanggye*

Kim, Bok-Soon

Travel essays of 『Sasanggye』 was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another magazines. They were not just for travels, and were kind of inspection reports, academical exchanges and academical (random) interviews.

Travel essays on the western depicted western societies as ‘universal’, ‘developmental’ based on orientalismic point of view. Ideas about reorganization of regionalism were not to be found, and the gender of ‘development(reorganization)’ was man.

Travel essays on the sub-western were deeply directed for Japan's ‘postwar universality’, and ideas of the gender were not to be found.

Travel essays on the non-western drived national point of view anew, and wills about reconstructing universality through reorganizing regionalism were confirmed. With structuralizing backwardness=feminity=underdevelopment, advancement=masculinity=development equations, sexual metaphor was drived.

Key words : Cold war, Asian Regionalism, Asian Universality, Development Theory, Reconstruction, Underdevelopment, Backwardness, Gender Agenda, Anti Communism, Defeating Communism, Orientalism, Cold War-Liberalism, Sexual Metaphor, Post Coloniality,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Neutralism

■ 본 논문은 2016년 7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